

目次
CONTENTS

- 인사말 1
- 도심에서 살아가는 맹금류 황조롱이(*Falco tinnunculus*)의 생태이야기 / 조삼래 3
The ecological life style story of Kestrel, *Falco tinnunculus*, in urban city / CHO, Sam-Rae
- 담수어류의 보존 - 천연기념물 후보담수어종 제안 - / 홍영표 13
Preservation of freshwater fish - Proposal of a natural monument candidate
freshwater fish species / HONG, Young-Poy
- 이른 봄철에 볼 수 있는 양서류의 종류와 생활양식, 보호 대책 / 전영호 30
Types of amphibians, lifestyles and protection measures that can be seen in early spring
/ JEON, Young-Ho
- 연천 은대리 물거미(*Argyroneta aquatica*) 서식지와 보존 대책 / 임현영 52
Yeoncheon EundaeRi water spider(*Argyroneta aquatica*) habitat and conservation
/ LIM, Heon-Young
- 협회소식 67
- 입회안내 70
- 투고규정 71
- 입회원서 72

자연보존 第 177號 <季刊> 非賣品
登錄番號 (서울)바-0520號 登錄日字 1975. 8. 26

2018年 12月 20日 印刷
2019年 1月 15日 發行

發行處 社團 韓國自然環境保全協會
法人

發行人	趙三來	04618
編輯人	金雄西/林憲英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7길 30 대학문화원 307호
印刷處	한림원(주)	전화 : 383-0694 FAX : 383-0695

Published :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Seoul 04618, Korea

자연보존



계간

제 177 호

Nature Conservation

2018. 12
칼라 특집호



사단법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황닷거미 (*Dolomedes sulfureus* L. Koch 1877)

[위 사진]

황닷거미는 일명 낚시거미로 불리며, 물가의 수초 사이에서, 앞다리로 물을 튀겨서 물고기를 유인하기도 한다. 물고기는 거미의 발끝을 미끼로 잘못 알고, 수면 가까이 오게 되면 순식에 잡아 먹혀 거미의 먹이가 된다. 황닷거미는 물속에 뛰어들어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를 사냥하기도 한다. 이 거미는 몸의 무늬와 색채 변이가 심하며, 개체에 따라 회갈색 띠무늬가 있기도 하다. 8개의 눈은 같은 크기로 2열이며, 앞눈줄은 곧고, 뒷눈줄은 강하게 후곡하여 3열로 보이기도 한다. 산야의 나뭇잎 위나 풀숲 사이를 배회하고, 7~8월에 산란하여 공모양의 알주머니를 암컷은 입에 물고 다닌다. 부화가 되면 관목 가지에 알주머니를 매달고, 새끼가 부화 분산할 때까지 지킨다. 위 사진은 황닷거미가 물속의 송사리를 엄니로 물고 있는 모습이며, 물의 반사로 인해 마치 물위에서 황닷거미가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표지 사진은 물속의 송사리를 사냥하는 장면이다.

글/사진 :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간사 임현영

자연보존 제177호 2018. 12 / Nature Conservation No.177, December 2018

자연보존 편집위원

위원장	김웅서(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위 원	고평렬(제주대학교)	김태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변화근(서원대학교)	정종철(서대문자연사박물관)
	정철운(국립공원관리공단)	

※ 자연보존에 게재된 내용 가운데 필자의 견해는 본 협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